

# 더 이상 5월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을까?

##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짚레꽃이 날아다니던 5월은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날이 있어 만남의 기쁨으로 봄벌처럼 따스했다. 태어나는 아기가 줄고 인구가 줄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30년쯤 뒤에도 이러한 만남이 평범한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곳의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이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많은 경우 젊은이들의 현실은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1학년 학생들의 소논문을 쓰는 과제에서 연속적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년에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껴 써서 종잣돈을 모아 졸업과 동시에 집을 사겠다는 학생을 보았다. 그 학생은 재주도 많아 보이는



어린이들이 잔디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시

데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소논문을 썼다. 경제학적 차원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이번 학기의 학생은 비트코인과 주식투자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 썼다. 아주 작은 투자로 시작했다는 데, 실패 없이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글의 소재로 선택한 모양이다. 꿈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했지만 1학년 학생들의 고민은 취직이고 투자이고 현실적 성공이다. 과거 학생들의 고

민과 다른 면을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실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사적으로 젊은이들과 얘기를 나누면 자신들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의 경제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출근 시간과 아이 등교 시간이 차이가 나서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고 방과 후에 데려오고 학원 보내는 일도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들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칠드런 시티'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영어와 사고력 증진을 위한 학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떨어지면 석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고 한다. 학원비도 영어학원은 70만원이고 다른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몇 군데 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가 하나일 때도 쉽지 않지만 만약 둘일 경우 부부의 월급 중 한 사람 몫은 오로지 학원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취업도 어려워 해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누적되고 있다. 국가는 부모수당과 아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우유값과 기저귀값도 지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처럼 신생아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생존을 영위했다. 젖이 모자라면 동네 젖동냥을 하기도 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우리에게도 현실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뎌/ 우라지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굣길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뒷머리와 닮았어/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부분

함경북도 경성 출신의 월북작가 이용악의 시는 오랜기간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시를 보면 당시 한반도 북쪽 끝 마을의 생활상이 잘 드러난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러시아에서 소금을 밀수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국수집도 하고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남매를 키웠다. 그의 살아온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겪었던 일들이었다. 지난 날에 우리는 엄마 등에 업힌 아기를 자주 보았었다. '어부바' 소리도 자주 들렸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흘러간다면 업어줄 아이도 없고 그리워할 대상도 없는 미래만 기다릴 것이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것도 내용없는 형식으로만 들릴 것이다.

## 가짜 얼굴, 가짜 목소리 딥페이크 범죄 미리 알고 예방하자

### 발언대

방은진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기술로 제작돼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일컫는 말이다.

처음 딥페이크는 기존 영상에 유명한 얼굴을 입힌 가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에서 공유하는데 많이 쓰였다. 이후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 하면서 가상 인간을 제작하거나 영상 효과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영화

제작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지만, 오픈소스 형태의 영상합성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많은 사람이 제한 없이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의 영상의 구분이 어려워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딥페이크를 부적절한 성적 영상 제작이나 가짜뉴스 생성 및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AI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 영상과 결합하여 가짜 영상을 만들고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얼굴을 확인시켜 믿게한 후, 의심없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목소리를 통한 범행방법보다 더 진화

된 형태로, 가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심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신종 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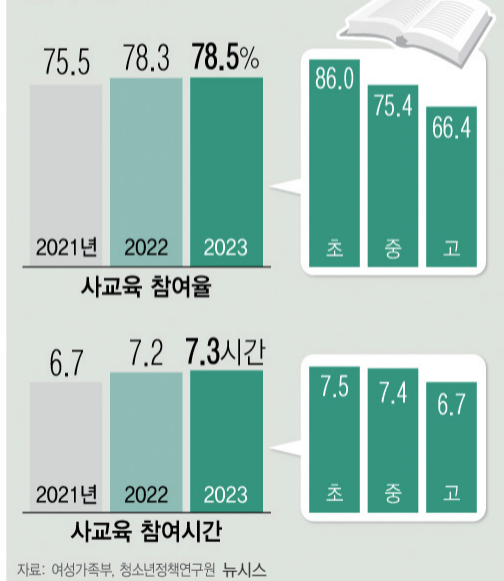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SNS에 정면사진, 영상지문 등 개인신상 올리지 않기, 영상통화 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 가지기, 영상통화 시 상대방(사기범)의 이미지가 느껴지거나 입 근육이 오디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상통화 중 옆 얼굴을 비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짜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져 그 대답 여부에 따라 딥페이크의 진위를 구별하는 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 기법은 위 유형 외에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방을 강조할 때이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청소년 사교육 참여율·참여시간

단위: %, 시간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